

응급환축의 처치(5)

- 위장관의 이물, 직장 및 자궁탈, 외부허니아, 감돈포경과 난산 -

윤 정 희*

1. 위장관의 이물

원인: 위장관의 이물이란 음식물이나 물 또는 경구적으로 동물에게 투여된 약제 이외의 것을 말하는데, 대동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금속, 천, 나무, 뼈, 고무 등을 사료를 먹고 있는 중에, 소동물의 경우에는 씹고 있거나 노는 도중에, 우연히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위장관의 이물이 위험한 이유는 위장관의 천공이나 열상, 찰과상 또는 부분적이거나 완전한 폐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지어는 바늘과 같이 뾰족한 물체를 비롯하여 많은 이물들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위장관을 통해 어려움 없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구토나 복통 등과 같은 즉발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의 이물이라면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고양이에 있어 흔한 이물로는 끈이나 실 등이 있는데 이는 설근부 주위에 감기거나 식도를 통해 위장관으로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장관은 견고하게 들어붙은 끈을 움직이고자 운동을 계속하나 결국은 추벽(아코디온의 구름모양)이 형성되고, 장관의 열상이나 괴사까지도 일으킬수 있게 된다.

응급처치: 위장관이물에 대한 응급처치는 주로 대중적으로 취한다. 환축을 억지로 구토시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대학원생)

려 해서는 안되는데, 이는 이물을 원래 위치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해를 끼치고 창상을 입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구강이나 인두의 이물은 더 이상의 해가 없이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만약 고양이에서 설근부에 끈이 감겨져 있는 것을 알았더라도 끈이 그것을 꼬집어내려 해서는 안되는데, 왜냐하면 이로 인해 위장관에 더욱 심한 손상을 야기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끈이나 실을 조심스럽게 끊어주면 위장관을 무난히 통과할 수도 있으나, 만약 폐색이 인정된다면 외과적으로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2. 직장탈

원인: 직장탈은 직장이 항문을 통해 뒤집혀져 나오는 것인데, 어린 동물에서 배변시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아주 흔히 발생한다. 직장탈이 위험한 이유는 항문을 통해 탈출되어 외번된 직장점막의 건조나 괴사 그리고 정맥환류부전으로 인한 탈출된 직장의 부종 등이다. 동맥은 빠져나온 직장으로 혈액을 계속 보내려하나, 항문주위의 압력은 빠져나온 직장으로부터 정맥혈로 되돌아가는 순환을 부분적으로 폐쇄한다.

임상증상: 항문으로부터 빠져나온 직장은 빨갛게 충혈된 덩어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 흔히

심한 긴장감을 수반한다. 그것은 크기가 아주 작고 둥글수도 있고 또 긴 소세지 비슷한 아주 크고 긴것도 있다.

응급처치: 직장탈의 응급처치는 빠져나온 직장을 정복시키도록 해야 하나, 만약 불가능하다면 창상을 입거나 건조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한다. 크기도 크지 않고 시간이 별로 경과하지 않은 직장탈은 별 어려움 없이 정복될 수 있다.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닦아주고, 필요하다면 윤활제를 바르고 정복을 위해 서서히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다. 만약 빠져나온 직장이 쉽게 정복될 수 없다면 그것을 습윤하게 유지해 주고, 등장성식염액(구할 수 없을 땐 수돗물도 무방함.)으로 적신 거어즈나 천 등으로 주위를 감싸준다. 식염수 대신에 10% 포도당과 같은 고장성용액도 건조를 방지하는 것 말고도 부종을 감소시킨다.

3. 외부허니아

원인: 허니아는 어떤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구멍을 통해 조직이나 장기가 빠져나온 것을 말하는데, 복벽의 허니아는 매우 흔하게 일어나며, 복벽근에 뚫린 구멍으로 빠져나온 내용물들이 피부만으로 덮여 있다. 허니아는 선천적이거나, 창상에 의해 또는 조직의 약화에 기인해서 오는 경우가 있으며, 대개는 외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허니아의 위험성은 탈장된 조직 특히 그것이 위장관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을때 허니아륜 부위가 감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며 또는 그것을 싸고있는 피부에 손상이 있다면 밖으로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절개부의 허니아는 외과적 수술시에 절개했던 곳이 터져서 발생하며, 서혜허니아는 서혜부에서, 대개는 서혜륜을 통해 일어난다. 회음허니아는 항문옆의 회음부에 일어나며, 배꼽허니아는 복정중선상에 있는 배꼽을 통해 발생한다.

허니아는 대개 부드러운 반죽모양으로 부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물이 허니아륜을 통해

서 쉽게 밀려 들어갈 수 있다면 정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쉽게 밀려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응급처치: 정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내용물들을 정복시켜준 후에 곧 내용물들이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붕대를 감아준다. 정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축을 조용하게 해주고, 탈장부에 외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감돈포경

원인: 감돈포경이란 발기후 팽대된 음경이 포피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한 것을 말한다. 보통 교미후에 발생하며 음경이 포피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응급처치: 감돈포경의 응급처치는 노출된 음경을 보호하고 그것을 다시 포피속으로 정복시키는 것인데, 필요하다면 깨끗이 닦아주고, 부종 또는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정복하기 전에 냉습포를 하면 종창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음경에 윤활제를 잘 발라주고, 포피외구를 약간 뒤집어, 음경위로 서서히 밀어준다. 만일 잘 윤활되어진 음경위로도 포피가 쉽게 미끄러져 나가지 않는다면 등장성식염수로 적신 가아제스폰지나 헝겊으로 음경주위를 둘러싸주어 습기를 유지시켜주어야 한다. 10%포도당 같은 고장성용액을 이용하면 삼투적으로 종창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 자궁탈

원인: 자궁탈이란 질 외구를 통해 자궁이 외번되어진 것을 말한다. 자궁탈은 분만직후에 주로 발생하며, 그 위험성은 정맥환류장애로 인한 탈출된 조직의 종창과, 노출된 자궁점막의 건조와 괴사에 있다.

임상증상: 탈출된 자궁은 음부를 통해 튀어나온 붉으스레한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크기는 작을 수도 있고 매우 커질 수도 있다.

응급처치: 자궁탈의 응급처치는 자궁을 정복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만일 정복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잘 보호해줘야 한다. 탈출부가 작으면 노출된 점막을 잘 닦고 필요하다면 윤활제를 발라주고 천천히 지긋하게 밀어 넣어 정복시킨다. 만일 탈출부가 너무 크거나 정복이 불가능하다면 노출된 조직을 닦아주고 등장성 식염수나 물 또는 10% 포도당과 같은 고장성 용액으로 습윤하게 해주며 자체외상을 방지해야 한다.

6. 난 산

원인: 난산은 크게 모축원인성과 태축원인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모축원인성 난산은 산도가 좁은 골반이상, 쇠약한 자궁수축, 자궁염전 그리고 심리적장애 등에 기인하며, 태축원인성 난산은 정상보다도 큰 태아, 쌍태아, 이상위태아 등에 기인되는 것이다.

분만: 분만은 3개의 정상적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분만 제 1 단계는 자궁수축과 경관의 이완기를 말하는데, 이때 모축의 행동은 침착하지 못하고 불안해 한다.

분만 제 2 단계는 태아가 실제로 분만되는 시기이며 모축에서는 태아를 만출시키기 위해 간헐적으로 강력한 복부수축의 횟수가 증가하게 된다.

분만 제 3 단계에서는 태반이 유출되는데, 이것을 후산이라 하며 소동물에서는 거의 분만직 후에 후산되나, 대동물에서는 상당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흔히, 특히 애완동물의 경우에는 분만중에 필요이상의 관심을 기울여, 사람의 불필요한 개입으로 모축의 심리를 불안정하게 하여 난산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동물은 사람의 도움없이도 어렵지 않게 분만을 할 수 있

는 것이다.

분만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여기에서 모두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분만과정에 일단 관여하기로 결정했다면, 분만을 도와주는 데는 일반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다.

청결: 신생자축이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과 모축의 산도에 게재되어 있는 지지분한 것들을 깨끗이 닦아주고 소독해야 하며, 주위환경도 가능한 한 깨끗하게 해야 한다.

윤활: 멸균된 수양성윤활제를 이용하면 태축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되고, 모축의 산도에 외상을 방지할 수도 있다.

견인: 분만을 돕기 위해 견인이 필요할 경우, 가능한 머리를 잡아당기지 말고 다리만을 잡아당기도록 해야 한다. 미끄러운 태아를 형겅이나 수건 또는 가아제스폰지 등으로 잡고, 천천히 계속적으로 잡아 당겨야 하며 모축이 수축 운동할 때를 맞춰서 당긴다.

신생축의 보호: 태반이 신생축의 얼굴을 덮고있어 모축이 그것을 빨리 제거하지 못할 때는 손으로 제거해줘야 한다. 모축이 신생축을 핏아서 깨끗하게 닦아주도록 하고, 호흡을 자극하도록 한다. 만약, 모축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액체가 묻어있는 신생축의 코와 입을 닦아주고, 보드라운 수건이나 형겅으로 부드러운 면서도 힘이 있게 문질러서 호흡을 자극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호흡이 곧 시작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시켜야 한다.

(본 원고는 Colville, T. P.; First aid for GI foreign bodies, rectal and uterine prolapses, external hernias, paraphimosis and dystocia. Mod. Vet. Pract., 67 : 472-474, 1986을 번역, 요약한 것임.)